



친구 여러분,

전국의 신앙 공동체와 민족 공동체들이 인종 차별과 백인 우월주의의 죄악에 맞서기 위한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. 그들은 연대하여, 연령, 성별, 성 정체성, 성 경향성에 상관없이 흑인의 생명이 우리 사회의 가장자리로 더이상 무시되고, 소외되고, 밀려나지 않도록 요구하고자 나서고 있습니다. 그들은 무고한 흑인에 대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살해를 항거하고 있습니다.

[미국 장로교도](#)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는 운동에 동참합니다.

[장로교 행동 주간, 8월 24-30](#) 은 인종 차별 근절을 지원하고 하나님께서도 모든 흑인들의 생명을 사랑하심을 인정하는 미장로교의 선언문과 정책을 강화하는 교육, 가시성, 행동들을 촉진할 공적 증언을 제시하는 노력입니다.

[“인종차별의 죄와 이에 대한 행동 촉구에 반응하여”](#)를 통해, the 224회 총회 (2020) 는 선언했습니다: "우리 나라의 가장 중요한 기관들은 우리 유색 인종 형제 자매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백인의 특권을 유지하고 백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세워졌다. 무지, 부인, 때로는 고의적인 행동 들을 통해 교회는 이 불의에 동참해 왔다. 우리는 제도적 인종차별의 현실을 직면하는데 있어 소극적이었다. 우리는 우리 동료 장로교인들, 우리 동료 기독교인들, 우리 동료 시민들, 더 나은 삶을 위해 미국에 온 이들의 고통을 인식하는데 소극적이었다. 더 나은 삶을 위해 미국에 온 이들의 가치는 그들의 피부색으로 판단되었다." 총회는 교단이 "적극적으로 우리의 교회와 사회 내에 존재하는 제도적 인종차별에 맞서고 타파하며, 더 정의롭고, 자비로우며, 평화로운 나라,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번성할 수 있는 나라"를 위해 노력하도록 촉구했습니다.

교단 직원 및 더 큰 교회로서 동참함으로써, 우리는 우리 교단과 공동체들 내의 정의, 사랑, 평등의 영역에서 신실한 리더십을 보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.

교단 및 미장로교 모든 교회들이 8월 24-30일 주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. 타운홀 미팅, 영화 상영, 시가지 행진, 공동체 봉사 등의 행사가 진행될 것입니다. 참석을 계획하셔서 지금 바로 행동해 주세요. [행사의 일일 일정입니다. 디지털 툴킷으로 소식을 나눠 주십시오.](#)

우리는 우리 교단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의를 향한 선행을 인식하고 귀하게 여깁니다. 하지만 지금 이 시기에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닫습니다. 장로교 행동 주간이 우리의 현 상황의 시급성을 충족시키길 바라지만, 이는 교단으로서의 우리의 일의 정점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. 왜냐하면 제도적인 인종차별과 백인 우월주의를 근절하기 위해 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, 이번 주는 우리에게 힘을 하고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가 따르는 믿음을 살아 있게 할 것입니다.

(보낸 사람 서명)